

11기, 누구냐 넌?

-하나고등학교 11기 인터뷰



지난 7월 30일, 하나고등학교 다올터에서 1학년 정해윤, 김다인, 안민, 김준모 학생을 만났다. 아래는 4명 학생과의 인터뷰 내용

◆기자: 입학 전 하나고에 대한 환상, 기대 등이 있었을 것 같다. 입학 후 달라진 게 있나?

안민: 하나고는 처음엔 넘어야 할 높은 산처럼 느껴졌다. 그러다가 학교에 들어와 친구들과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새 학교가 친근하게, 집처럼 느껴졌다. 또, 죄다 모범생에 조용한 친구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생활을 해보니 놀 땐 신나게 노는 친구들도 많더라. 일반 학교와 시스템이 다를지는 몰라도 본질은 같은, 그냥 학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

김준모: 저도 비슷하다. 들어오기 전엔 모범생만 모이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했다. 제가 그런 부류가 아니라 뒤쳐질까봐 조금 걱정을 했는데, 들어오니까 친구들이 공부할 땐 공부하면서도 놀 땐 잘 노는 것 같아서 그런 인식이 바뀌었다.

정해윤: 학교 자체가 커서 하나의 도시, 마을에 사는 기분을 느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김다인: 밖에서 볼 때 학교는 엄청 커 보이고, 뭔가 범접할 수 없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계속 학교에 있다 보니까 이제는 집처럼 느껴지는 것 같다.

◆기자: 코로나로 여러 행사, 활동이 무산됐다. 그 중 가장 아쉬운 것이 있다면?

안민: 신입생 환영회 공연에서 선배님들의 공연을 보며 공연동아리를 선택할 기회를 가지지 못해 아쉬웠다. 또 예비학교에서 친구들과 먼저 친해질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

김준모: 축제가 가장 아쉽다. 제가 '무브멘탈'에 있는데, 공연도 못하고 다른 동아리들의 공연도 못 보게 되니까.

정해윤: 1인2기가 가장 아쉽다. 애초에 예체능 활동도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점에서 하나고에 지원했던 것도 크다. 그게 안돼서 아쉽다.

김다인: 하트 공연에서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하는 하나인의 모습을 보고, 참여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계속 수행평가와 시험만 보니까 아쉽다.

◆기자: 한 학기 정도 다녔으니 학교/기숙사에 불만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교칙 중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나?

안민: 기숙사 반입금지 식품에 왜 과자가 포함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저희가 과자 가루를 안 치울 것도 아니고. 탄산도 안 되는데, 간식 시간에는 웰치스 등 탄산이 나온다. 차라리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탄산과 배달음식을 허용하는 날을 정하면 학생들의 불편도 줄이고, 건강도 해치지 않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김준모: 11시 40분 이후에 동문 닫히는 게 불편하다. 물을 떠올 수도 없고, 냉장고에 먹을 게 있는데 먹지도 못하고.

김다인: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적용되지 않지만 특정 요일에 교복을 입어야 하는 교칙이 이해가 안 된다. 저는 교복 입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날 짜를 정해놓으니까 좀 그렇다.

◆기자: 각 기수마다 나름의 특성이 있다. 11기의 특성은 뭘까?

안민: 친화력이라고 생각한다. 룸메이트 선배들이 11기 전체 특을 보고 놀라셨다. 서로 반말을 하고, 여자애들은 애교 섞인 말투도 쓰고 해서. 가끔 셀카가 올라오기도 한다.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채팅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된 건지는 몰라도, 친화력은 끝내 준다.

정해윤: 처음에 좀 수업할 때 분반마다 특 방을 만들었다. 그런 점에서 협동심이 강한 기수인 것 같다.

김준모: 개인적인 생각인데 비주얼이 뛰어난 친구가 많다고 생각한다.

◆기자: 마지막으로, 각오라고 할까, "선배들은 들으라!" 같은 한 마디 부탁한다.

김준모: 시험기간에 처음으로 등교를 하다 보니 들떠서 조금 시끄러웠는데, 이제 점점 적응하고 있으니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

정해윤: 11기는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기수다. 이전 선배님들보다 좀 더 활동적이고 열심히, 잘하는 기수가 되도록 하겠다.

안민: 8기에 수능 만점을 받으신 선배가 계시다고 들었다. 저희는 코로나라는 걸림돌이 있었지만, 아무런 지장이 없게 수능 만점자가 가장 많은 기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다인: 늦게 온 만큼 열심히 적응하고, 선배님들과도 잘 지낼 수 있는 11기가 되겠다.

기자: 수고하셨다. 긴 시간 감사하다.

건의사항, 그 시작점

모종의 이유로 1학기가 6월에 시작되고, 하나 고 생활에 많은 변화가 생기면서 학생들의 건의사항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당장 학생회에서 운영하는 에스크(asked, 익명 질문함)만 봐도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확인할 수 있다. 면학실이나 급식실 의자 교체, 카페트 세탁 등과 같이 단순한 건의가 올라오기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학교의 정책이나 규칙을 바꾸고자 하는 면학실 전자기기 사용, 학사일정의 시험 기간 맞춤 조정, 생활관 와이파이 설치, 사교육 관리 강화 방안 등도 끊임없이 제시되고 있다. 이 곳에 올라오는 건의사항들은 학생회의 심의를 거쳐 교장선생님과의 간담회 날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한다. 간담회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같은 건의사항들은 인트라넷에도 역시 게시된다. 최근 올라온 건의사항 중 하나는 ‘체

육시설과 개인연습실을 포함한 학교 시설의 개방을 요청드립니다.’ 라고 말하며 코로나19로 인해 폐쇄된 시설들의 개방을 건의했다. 이는 약 90명의 학생의 동의를 얻으며 학교 시설의 개방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건의사항들이 반영되기 위해 각 개인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기존에 정해진 학교의 규칙이나 예방수칙들을 잘 준수하고, 참여할 수 있는 학교의 정책에 참여하는 등 학교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는 누가 만들어가는 것일까? 물론 학교의 전체적인 질서를 유지해주는 선생님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하지만 결국 학교가 어떤 학교가 될지 결정하는 건 다름 아닌 우리 학생들이

다. 그러므로 현재 제시되는 많은 건의사항들을 다. 그러므로 현재 제시되는 많은 건의사항들을

없다. 이는 오히려 학교 운영에 대한 학생의 참여와 기대를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겉으로만 좋아 보이는 학교가 아닌, 학생들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건의사항들은 좋은 시작점이지 않을까?



(출처: 네이버)

11기 박현경 기자

전체 등교를 하면서 생긴 문제점

코로나로 인해 신입생 예비학교가 취소된 후 개학 연기가 발표가 나며 4월 7일에 온라인 개학이 안내되었다. 온라인 개학식이 진행되었고 본격적인 온라인 수업이 시작했다. 학생들은 구글 클래스룸과 줌을 통해 수업에 참여했다. 이후 5월 4일부터 많은 학생들이 기다리던 오프라인 등교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는 완전한 등교가 아닌, 1학년과 2학년이 매 주 번갈아 입교하는 격주 등교였다. 7월 20일, 드디어 전체 등교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전체 등교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전체 등교의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전체 등교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를 초래했다.

먼저 전체 등교가 시작되자 격주 등교 당시 한 방을 번갈아 사용하던 1,2학년이 동시에 같은 방에서 지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기숙사 내에서 선후배 간의 기본 예절과 기숙사 수칙을 더욱 준수하는 등 우리가 모두 전보다 더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또한 격주 등교를 할 때보다 200명 이상이 늘어나면서 2m 이상 거리 두기가 어려워졌다. 이 부분은 특히 급식 시간에 관찰할 수 있다. 600명 이상이 한 곳에 모여 급식을 먹다 보니 방역에 취약한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 급식 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줄을 설 때에는 마스크를 꼭 쓰고, 2m 이상 거리 두기를 지켜야 한다. 또한 현재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일시적으로 급식 자리가 지정되어 있다. 친한 친구와 함께 앉기 위해 다른 학생의 자리에 앉으면 그 학생들이 다른 자리를 찾아 나서야 하는 난처한 상황이 벌어진다. 급식 시간을 지키고 본인의 자리에 앉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우리 모두 방역 수칙과 학교 내에서의 방역 조치를 잘 지켜 코로나 사태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11기 홍연수 기자



(출처: 하나고등학교)

온라인 클래스: 적응해야만 하는 변화

전례 없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회가 코로나 이전과 후로 나뉘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당연히 교육일 것이다. 개학이 3주가량 연기되고 마침내 4월 초부터 전국적으로 온라인 클래스를 시작하게 되었다. 초반에 인터넷 기기 문제와 평가방식과 같은 문제가 대두되었다. 그리고 막상 온라인 클래스를 시작하더라도 수업이나 과제 함이 올라오지 않아 제출을 못 하는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았다. 하나고 역시 이런 문제들을 마주한 학교 중 하나였다. 게다가 추가 과목과 토론 수업이 많은 하나고의 교육 과정은 선생님들의 부담이 커져만 가는데 한몫했다.

그러나 많고 많은 문제 중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의 학업에 관련한 문제이다. 평소 생활하던 기숙사가 아니라 집에 있어서 생활 패턴이 깨져 학업에 집중하기 위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 학교에서는 온라인 수업 초반에 학생들에게 개학 전까지의 계획표를 작성하도록 하였지만, 이것만으로 규칙성 있는 생활 패턴을 되찾기엔 역부족이었다. 출석 과제를 제출하지 않는 학생들의 명단을 직접 뽑고 전화로 강의를 듣도록 관리하는 것은 온전히 담당 선생님의 역할이었으며 학업 관리가 등교 개학 때보다 어려웠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온라인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잠을 자다가 실시간 수업에 못 들어오는 상황도 발생했으며 3월에 실시했던 모의고사 때 학생들이 관련 문제를 검색해서 실시간 검색어가 중요한 논란거리가 되었던 사실로 미루어 보았을 때 온라인 클래스의 효용성에 대해 의심이 들기도 한다.

1 대조영	1 라디안
2 풍오룡 전투	2 2020 3월 모의고사 답지
3 살수대첩 ∞ 강감찬, 백제	3 2020 3월 모의고사
4 과전법 ∞ 탈평비, 규장각, 9주 5소경, 전민변정도감, 대동법, 균역법, 김홍도, 김홍중의 난	4 sin30
5 의열단 ∞ 신간회	5 라디안
6 삼국사기	6 3p2
7 나철	7 실수
8 이마트 닌텐도 스위치	8 2020 4월 모의고사
9 연애의 참견3 재연배우 ∞ 연애의 참견3, 연애의 참견, 연애의참견 재연배우	9 바이넥스
10 퇴마 무녀굴	10 stx

(출처: 매일안전신문)

평소 등교 수업일 때는 출석 확인에 큰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었으며 학생 지도도 즉시 이루어졌기에 학생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었다. 그러나 온라인 클래스가 시작된 이후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해 출석 과제를 만들어야 했으며 이를 확인한 후 미제출 학생에게는 직접 전화를 걸어 강의를 듣도록 해야 했다. 이는 매우 번거로운 일이었을 것이며 학생 지도는 전보다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학업

평가에 있었다. 장기간의 개학 연기로 인해 본래 치러졌어야 했던 많은 수행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큰 골칫덩어리였다. 과목별 차이는 있지만, 구글 docs를 이용해 진행하거나 화상회의 영상을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인터넷 연결 문제로 제출 기한 내에 과제를 제출하지 못해 불만을 표하는 학생도 있었다. 온라인 수업 중의 예절 문제도 있었다. 수업 도중 밥이나 간식을 먹는 학생도 종종 생기었으며 카메라를 켜지 않거나 수업 시간에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등 온라인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 학생도 나타났다.

온라인 클래스에 진심으로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지만 몇몇 학생들은 자율적인 과목들을 활용해 시간표를 짜서 남는 시간에 원하는 과목들의 추가 학습을 진행했다. 온라인 클래스의 효용성에 대해 긍정의 대답을 한 10명 중 6명의 하나고 학생은 공통적으로 이해가 바로 가지 않는 과목이면 강의를 편하게 다시 돌려 들으며 온라인 클래스를 복습에 이용했다고 한다. 또한, 온라인 클래스의 특성을 이용해 이동, 대기 시간의 손실 없이 집에서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어 등교수업보다 효율적이라고 대답한 친구도 있었다.

또한, 온라인 클래스는 선생님들에게 업무 부담을 주기는 하지만 수업의 질을 높여주는 수업 관련 자료를 복사와 인쇄하는 과정 없이 편히 배포할 수 있으며 선생님들에게는 과제 제출 여부가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직접 제출해야 했던 과제보다 편했다고 한다.

온라인 개학을 한 지 3개월이 지났으며 1학기가 끝이 났다. 그러나 코로나의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아 다가오는 2학기 역시 격주 등교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1학기에는 온라인 클래스가 처음이었던 만큼 모두가 서툴고 불안했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2번째 시도를 앞두고 있으며 하나고는 1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 설문을 진행했고 과목별 의견의 사항을 받으며 앞으로의 온라인 수업에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다.

“가끔은 혁신을 추구하다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빨리 인정하고 다른 혁신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Sometimes when you innovate, you make mistakes. It is best to admit them quickly, and get on with improving your other innovations)” 이는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남겼던 명언이며 우리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준다. 온라인 클래스라는 변화에서 우리는 실수를 했으며 학교, 선생님, 학생이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을 결심하게 해준다.

코로나19에도 끄덕 없는 하나고 선생님들의 하루 일과!

코로나가 확산된 이후,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는 등 학교의 운영방식이 크게 변화했다. 하나고 선생님들의 일상을 조금이나마 들여다보기 위해, 영어과 하현주 선생님의 하루를 살펴보았다.



▲ 하나고등학교 전경

8:00 a.m. 희망찬 하루가 시작했습니다.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아름다운 전경과 함께 하나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일상을 따라가 볼까요?



▲ 온라인 수업의 모습

10:00 a.m. 하나고등학교의 자랑인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어권문화'와 '심화영어독해'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실시간 수업에서도 열띤 참여를 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 점심 시간

12:00 p.m. 학생들만큼이나 선생님들도 점심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만큼 하나고등학교의 급식이 맛도, 영양도 만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점심을 먹고 잠깐 동안 푸른 잔디 운동장과 아름다운 한옥마을의 전경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재충전의 시간을 갖습니다.



▲ 등교 학생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

02:00 p.m. 오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격주 등교로 인해 이번에는 교실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안전을 위해 모두 마스크를 쓰고 질서정연하게 앉아 있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하나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업 열기가 아주 뜨겁죠?



◀ 온라인 강의에 대한 선생님들의 연구 활동

04:00 p.m. 수업이 끝난 후에도 선생님들의 열정은 계속 됩니다. 실시간 수업을 위한 연구, 영상 제작 노하우 공유, 자체적인 워크숍을 통해 온라인 수업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 늘 당연하게 여겨왔던 교실 내에서의 수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격주로 열리는 대면 수업을 감사히 여기고 더욱더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도록 해요!)

하현주 선생님

요리 동아리의 ‘버무리’의 코로나19를 지내는 방법

- 하나고 유일무이 요리 동아리 버무리의 활동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활발한 동아리 활동이 불가능한 요즘, 하나고 학생들은 어떻게 동아리 활동을 꾸려가고 있을까? 여기에 특이한 활동을 계획한 동아리가 있다.

버무리는 주로 축제, 힐링캠프 등의 학교 행사에서 음식을 파는 활동을 한다. 작년에는 흑당 버블티, 팔빙수 등의 음식을 매진시킨 기록이 있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1학기 활동을 꾸리기 어려워지자, 새로운 활동을 계획하였다. 먼저, 동아리원들이 각자 집에서 음식 하는 모습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달고나 커피와 같이 집에서 할 수 있는 특이한 음식이 유행하고 있다. 하나고 학생들도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급식을 먹지 못하게 되자 집에서 스스로 음식을 해 먹어야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버무리 동아리원들이 자신들만의 레시

피를 공유하여 도움을 주자는 취지를 가진다. 다음으로, 요즘 유행하는 파 맛 체크스를 맛있게 먹는 방법을 연구하는 활동을 계획했다. 파 맛 체크스는 16년 전, 캘리포니아에서 주최한 라 대통령 선거 이벤트에서 밀크초콜릿 맛을 상정하는 체키가 파 맛의 차카를 극적으로 이긴 것에 대해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자 출시하게 된 것이다. 한정판으로 출시된 파 맛 체크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소비되고 있는데, 특히 많은 유명 1인 방송 크리에이터들이 파 맛 체크스를 맛있게 먹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파 맛 체크스는 과자 보다는 파에 가까운 맛이라고 한다. 이런 특징 때문에 많은 1인 방송 크리에이터들이 파 맛 체크스를 시리얼로 먹기보다는 기존 한식에 곁들여 먹는 경우가 많다. 유명 트위치 스트리머 선바는 파 맛 체크스를 국밥에 말아 먹는 방법을 소개하였고, 이밖에도 체크스 가루 튀김 치킨, 파김치, 파전

등을 만들어 먹는 유투버가 많았다. 버무리에서도 파 맛 체크스의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해 소개할 계획이다. 각자 파 닭, 땅, 우유, 볶음밥, 빙수, 라면, 설령탕, 파전, 파 계란말이를 말아 파 맛 체크스를 사용해 요리하는 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라면의 경우, 치즈 불닭볶음면에 파 맛 체크스를 함께 비벼 먹는다. 파전의 경우, 전 반죽에 파 맛 체크스를 으갠 가루를 넣고 반죽해 만든다.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어려워지자 많은 동아리는 온라인 포럼이나 스터디를 통해 나름의 방법으로 이 사태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버무리와 같이 대면 활동이 필수적인 동아리들을 평소에 하던 활동과는 다른, 새로운 활동을 계획하여 활동하고 있다.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처음 겪는 상황으로 인해 창의적이고 기발한 활동들이 기대되는 올해다.

10기 임예원 기자

보여줘, 틀어줘! 영화동아리 BOTTLE

- 하나고 신설 자율 동아리 소개

2020년, 하나고에 신설 동아리가 새로 탄생했다. 이름하야 “BOTTLE(보틀)”, 유일무이한 하나고 영화 동아리다. “보여줘, 틀어줘”의 약자로 “보틀”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이 동아리의 탄생 배경은 간단했다. 하나고에 영화 동아리가 없다는 것.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영화를 감상하고, 힐링하며 그것을 자유롭게 사람들에게 공유할 만한 동아리가 없다는 것이었다.



▲BOTTLE 학생 일동

BOTTLE의 활동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 영화 감상, 영화 비평, 영화 공유, 영화 제작이다. 제작하고, 직접 공모전에 출품한다. 최근에는

“영화 감상”에서는, 매달 모임을 열어 제안 및 투표로 정해진 영화를 감상한다. 최근에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2014)>을 함께 감상한 바 있다. 그 후 영화와 그 영화의 시사점, 상징물, 주제의식 등에 관하여 함께 깊고도 자유로운 토론(영화 비평)을 한 후, 각자의 방식대로 영화를 공유한다(영화 공유). 누군가는 영화의 시사점을 담은 카드뉴스를, 누군가는 영화 리뷰 형식의 영상을 제작해 영화를 소개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누군가는 자신의 전공을 살려 공유할 수도 있다. 가령 법조인을 희망하는 학생이 영화 속에 나타난 법 관련 소재들을 소개할 수가 있다. 또 그런가 하면, 영화 속 과학 지식을 소개하거나 영화를 패러디한 영상을 제작할 수도 있다.

BOTTLE은 영화를 보기만 하지 않는다. 이름에 걸맞게, 보여주고 틀어 주기 위해 우리는 영화를 제작한다. 학기당 1번, 또는 연 1회 영화를

“청소년국제영화제 개막작 제작지원 공모”에 참가했다. 그냥 무턱대고 촬영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다. 프로듀서, 감독, 조감독, 각본, 연출부원, 조명, 음향, 미술, 특수효과, 서류 작성…… 갖가지 역할을 분배해 체계적으로, 실제 영화 제작 과정에서 적용되는 형식으로 제작한다. 색다른 영화 제작의 경험이다.

영화를 잘 알고 있을 필요는 없다. 영화를 분석적으로,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질 필요도 없다. 그저 영화를 좋아하면 된다. 영화에 대해 깊은 토론을 나누며 철학적, 문학적 소양을 기르는 뜻 깊은 경험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하다. 실제 영화 제작 방식을 몸소 체험하고 신선한 경험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더없이 좋다.

영화 동아리 BOTTLE은 바로 그런 동아리이기 때문이다.

10기 김민재 기자

코로나19로 뒤바뀐 환경의 두 얼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전 세계를 강타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수십만 명이 숨지고, 수천만 명이 감염되었으며,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도 코로나19로 인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 정부는 사람들에게 사회 활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며, 재택근무, 개학 연기 등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있다.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인간 활동이 줄어들자 환경 또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과연 코로나19는 지구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세계 각국의 산업과 교통망, 기업들의 활동이 중단되면서 특히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산업국가에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급감하고 있다. 이산화탄소는 대표적인 온실기체로서 지구 온난화를 가속하는 주범이다. CNN에 따르면 작년 봄보다 뉴욕의 탄소 배출량은 50%에 가까이 감소했다. 이는 격리 조치로 인한 교통량 감소에서 비롯된 결과로 분석된다. 중국의 경우 올해 초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양은 25% 감소했다. 많은 공장이 가동을 중지했기 때문인데 '에너지 및 청정대기 연구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중국의 산업 활동은 최대 40% 이상 감소했다. 유럽우주기구(ESA)는 유럽 산업단지의 이산화질소(NO2) 농도가 최근 6주간 많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북부 이탈리아 상공의 이산화질소 배출이 40%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산화질소란 자동차 가속 시, 고온 연소 시 발생하는 적갈색의 액체 또는 기체로서 인체와 환경에 매우 해로운 물질이다. 이산화질소를 흡입한 경우 화상, 호흡 곤란, 폐 이상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대기 중 산성비를 유발하고, 탄소와 결합해 스모그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햇빛과 반응해 초미세먼지를 생성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역시 초미세먼지 농도가 많이 감소했다. 지난 3월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측정된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지난해 같은 기간 $33\mu\text{g}/\text{m}^3$ 에서 $24\mu\text{g}/\text{m}^3$ 로 약 27% 감소했다. 환경부는 동풍 일수와 강수량 증가와 같은 자연적 기상 조건,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사회적 거리 두기의 실현 등 내부적 요인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인간의 활동이 줄어들자 야생동물들이 다시 서식지로 돌아오는 경우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영국 북웨일스 휴양지 란드드노에 야생 염소 떼가 나타났다. 칠레 산티아고에서는 퓨마가 거리를 떠돌다가 칠레 당국에 포획되어 동물원으로 옮겨진 사례가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는 야생 칠면조 떼가 주택가를 활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인 북부 아스투리아스에는 저녁이 되자 곰들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콜롬비아에서는 코로나19로 관광객이 감소하고, 선박의 입출항이 줄어들면서 카르타헤나 만에 돌고래의 출현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 또한, 전국에서 보기 힘들었던 개미핥기, 주머니쥐 등의 동물들도 거리에서 목격되고 있다. 환경오염과 인간들의 활동으로 서식지를 떠났던 동물들이 이번 사태로 돌아온 사례도 있다. 인도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동북 오디샤주 간잠 지역 루시쿨야 해변에 올리브 바다거북 80만 마리가 돌아왔

다. 루시쿨야 해변은 원래 올리브 바다거북이 알을 낳기 위해 찾아오는 장소였으나 관광객에 의해 발생한 쓰레기로 해변이 오염되면서 지난 수년 동안 바다거북들이 알을 낳으려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루시쿨야 해변 출입이 통제되고,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바다거북들이 알을 낳기 위해 다시 돌아온 것이다. 세계 각국의 환경단체는 이 사건을 환경오염이 줄어들고 바다거북의 서식지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좋은 징조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칠레 산티아고에 나타난 야생 퓨마(출처: Noticias con Yuriria Sierra 뉴스 화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각국의 경제 활동이 발이 묶이면서 전 세계 대기 상태가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거나, 야생동물이 다시 삶의 터전을 찾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일회용품의 사용량이 계속 증가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배달이나 위생상의 이유로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면서 환경오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감염병 대응 위기 단계가 '심각' 수준으로 격상됨에 따라 정부가 전국적으로 모든 식품접객업소에 일회용품 사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일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했다. 또 닐슨 코리아가 발표한 '코로나19 임팩트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전후로 배달음식 이용률이 29%가량 증가하면서 상당한 양의 일회용품이 포장 용기나 식기 등으로 소비되었다. 일회용품의 사용의 급증은 소각 시 이산화탄소 등 유해물질 발생으로 대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무분별하게 배출되어 처리가 곤란하다는 점에서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일회용품 사용이 불가피하지만, 개개인이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행동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코로나19로 인간 활동이 중단하자 지구 곳곳에서 일어난 환경 변화는 인간 활동이 환경에 악영향을 끼쳐왔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 또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일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하자 쓰레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제는 인간에 의한 환경 변화의 해결을 논의하고, '포스트 코로나'의 환경 인식과 경각심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의 진행과 미래

백신이란 동물에 특정 질병 혹은 병원체에 대한 후천성 면역을 부여하는 의약품이다. 백신을 접종 받으면 우리 몸 안의 면역 체계들이 활성화되어서, 미래에 침입할 수 있는 바이러스들에 대해 우리 몸이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이러한 백신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코로나19가 중국에서부터 감염되기 시작하면서 수 많은 사망자들과 확진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현재 미국, 중국, 독일, 영국, 한국에서 백신 개발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이 시작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백신 개발이 진행 중이지만 해외가 국내보다 빠른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발견되었던 백신 후보는 무엇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출처: 2020.3.18. 전자신문 네이버 뉴스)

코로나19 백신 후보 3가지에는 INO-4800, mRNA-1273, AZD 1222가 있다. 이노비오 백신 INO-4800이 전 세계 백신 개발 업체 중에서 개발속도가 가장 빠르다. 이 백신의 목표는 1종만 투여해도 예방과 치료 모두 가능하다는 것이다. mRNA-1273은 2020년 3월에 첫 번째 임상시험을 시작했으며 약 10개월 뒤에 1상 데이터 완료 후에 임상 두 번째 실험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백신은 인체를 대상으로 처음 투약 되었다. 미국 백신 개발사 모더나는 mRNA-1273이 올해 가을에 쓸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AZD 1222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제너 연구소에서 개발되었다. 2020년 7월 20일 의학저널 랜싯에 발표된 논문에서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4월 23일~5월 21일 영국 18~55세 성인 1,077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AZD 1222의 임상시험 결과 참가자 전원으로부터 감염체가 몸속에 침입했을 때 바이러스를 중화시켜 세포를 방어하는 항체와 면역 T 세포가 확인되었다. 8월에는 미국에서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한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현재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백신을 전 세계적으로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살펴보면 국내 기업들도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1999년 설립된 신

약 연구개발 기업인 제넥신은 2020년 6월 11일에 DNA 백신 임상시험을 시작했으며 진원생명과학과 SK바이오사이언스 등 임상시험을 올해 안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코로나 병원체 돌기 부분의 단백질이 인체 세포 수용체와 융합하는 것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백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돌기 부분의 꼬트머리였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가 변이되어 돌기의 목 부분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변이는 앞으로도 많고 다양한 변이가 얼마나 더 많은 부위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만약에, 변이가 목이 아닌 머리에서 발생하게 된다면 현재 개발되고 있는 백신들이 무용지물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정보를 알려주는 세계보건기구의 정보 사이트 GISAID에 따르면 확진 환자 169명에게서 얻은 바이러스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미국 연구진이 지난 1월 초 중국 우한에서 수집되었던 바이러스와 2월까지 미국, 중국, 한국 등 전 세계에서 수집된 86개의 바이러스를 비교한 결과 코로나19의 변이는 두 달 만에 돌연변이 93건이 발생함을 발견했다. 변이는 생길 수 있지만, 코로나19의 변이속도는 다른 질병의 변이속도보다 비정상적으로 빠르다. 변이가 바이러스와 인간 세포의 결합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일어나게 되면 전파력이 더 세질 수 있으며, 재감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변이의 특성에 따라 독성이 더 강화되거나 치사율까지 높아질 수 있다.

그러므로 백신 개발을 서둘러야 하며, 백신 개발이 성공된다고 해도 코로나19의 변이를 깊이 관찰하여 백신의 개발에 더 힘써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코로나19 백신이 나오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코로나 예방을 위해 지킬 수 있는 규칙들(손 씻기,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하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등)을 잘 준수해야 한다. 1월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삶이 바뀌었지만, 우리나라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수칙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포스트 코로나에 주목하다.

- 코로나 이후의 소비 트렌드와 뉴딜정책

작년 12월 중국 후베이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는 전 세계로 확산되며 팬데믹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7월 31일 기준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진자는 1701만 명으로,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메르스(MERS·중등호흡기증후군)와 비교하여 그 수가 큰 것을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인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영역에 대변화가 일어났다. 우리는 이러한 대변화 이후의 시대에 대비하며 이를 포스트 코로나(Post-COVID)라고 부른다. 포스트 코로나란 포스트(Post, 이후)와 코로나19의 합성어로, 코로나19 극복 이후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이르는 말이다.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다가올까

먼저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변화할 시장에 주목해야 한다. 첫 번째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발생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서비스의 디지털화와 온라인화가 본격화되면서 IT 기술 서비스업의 발달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다소 느리게 성장하던 클라우드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둘째, 비대면 유통 서비스의 확산으로 향후의 대부분 유통 사업이 비대면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전염병의 유행으로 대인 접촉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플랫폼, 배달업, 핀테크와 같은 비대면 유통 서비스가 크게 확산되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셋째, 홈코노미(Homeconomy) 서비스와 *이커머스 시장의 부상이 기대된다. 에프앤 가이드에 따른 주요 게임사의 2020년 1분기 영업이익의 전망에 따르면 대부분의 게임 업체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집에서 여가를 보내는 홈족 및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관련 서비스 업종이 부상하면서 홈코노미가 하나의 소비 형태로 정착할 가능성이 커졌다. 동시에 소비자들이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편의성을 추구하게 되면서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이 전망된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 방식의 일환인 온라인 플랫폼의 활용도 또한 중요해질 것이다. 넷째, 여럿이 함께 공유해서 사용하는 협력 소비경제인 공유경제가 새로운 모델로 대체될 것이다.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정부 주도의 '거리 두기' 운동 또는 캠페인의 확산으로 인해서 타인과 생활 반경을 나누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조되면서 공유 오피스 등으로 활성화 되던 공유경제가 보다 미니멀 하고 개인화된 모델로 변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광고기획사 SM C&C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소비자 행동 조사 리포트를 통해 긍정적인 분석을 제기했다. 그들이 제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키워드는 **빅 리바운드(Big Rebound)**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소비 행동들이 계속 위축되는 것이 아닌 코로나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거나 일부 산업·서비스는 훨씬 더 크게 성장할

핵심10대 키워드	내용
Be safe	안전이 1순위 - 일상생활의 최우선 기준이 바뀌다
Individualism	개인주의 성향 강화 - 개인 단위 일상 및 거리두기
Gourmet at home	집에서의 요리, 식생활 변화 - 달라지는 식생활/요리시장
Replacement Market	대체/대안 시장 성장
Education at home	홈 교육 - 부모&가정의 교육과 양육 부담/온라인 교육
Beyond Experience	온라인/버추얼 즐길거리 - 비대면 중심의 문화 공유
Online of Old boys	중장년층의 온라인 확장 - 온라인의 새로운 소비층
Upgraded 'Social' media	SNS의 사회적 가치 향상
Non Face-to-Face work	비대면 업무 변화
Domestic-oriented	국내 지향 - 국내로 돌아온 눈길

[표1] 포스트 코로나 핵심 키워드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반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봉쇄조치로 본래의 생산과 소비가 붕괴되어 전 세계 경제는 불황의 장기화로 진입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이 커졌고 공공의 역할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충격에 대한 회복 방안으로 한국판 뉴딜정책을 도입했다. 이는 크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라는 일명 **DNA**를 강조하며 네트워크 고도화, 비대면 산업 육성, *SOC의 디지털화 등으로 경제구조를 구도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 또한 그린 뉴딜은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뜻한다. 현재의 화석 에너지 중심 정책을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여 신산업 창출, 고용을 늘려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휴먼 뉴딜은 사람의 행복, 역량 등 사람 중심 경제를 구축하는데 투자하는 것으로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우선시한다. 위와 같은 한국판 뉴딜은 저출산, 양극화와 같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과 일자리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갈 수 있는 사업이다.

코로나가 세계 곳곳에 퍼진 지금,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땀이 흐르는 더운 여름에 마스크를 쓰는 것은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인류는 코로나를 발돋움 삼아 시장의 변화와 발전, 뉴딜 정책 등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도약을 알리고 있다. 이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며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방역에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가 되는 것이 어떨까.

*디지털 전환 : 디지털 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하여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혁신 시키는 것.

*이커머스 :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전자 상거래.

*SOC : 사회간접자본.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지는 않으나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자본. 교통시설, 상하수도, 댐 뿐만 아니라 자연이나 사회제도도 포함함.

문화예술계에 도입된 온택트

- 대면방식에서 비대면으로 변화하는 문화예술

2020년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이 제안되면서 사람들은 예전과 같았으면 마음껏 누렸을 외출도 조심하게 되며, 마스크를 쓰지 않고서는 밖을 나갈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렇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칩거 생활을 실천하게 되었고 외식, 문화생활, 운동 등 많은 것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요식업계, 숙박업계, 항공업계 등 다양한 업계들은 피해를 보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측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발생한 문화, 체육, 관광 업계의 피해 규모는 7조 원이 넘어섰다고 한다. 더 나아가 박물관과 미술관은 2월부터 6월까지 관람료 수입, 편의시설 매출 등의 감소로 523억의 피해가, 공연 분야에서는 예매 취소 등의 이유로 매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천 100억이 감소했다. 영화 업계에서는 관객 수가 작년에 비해 81.6%가 감소하게 되었으며 매출액은 7천 555억 원이 감소했다. 물론 코로나19 사태는 문화예술 업계에 금전적인 피해를 주었기는 하나, 코로나로 인해 새로 얻게 된 변화 역시 존재한다.



▲ 방방콘 The live 캡처 사진-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코로나19 사태가 장기적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새로운 흐름이 생겨나게 되었다. 바로 온택트(Ontact)이다. 온택트란, 비대면을 뜻하는 언택트(Untact)에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을 더한 개념이다. 즉, 외부활동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다. 그렇게 적은 관람객들로 인해 불황을 맞았던 문화예술 업계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온택트를 도입하게 되었다. 우선 공연 시장에서는 온라인 라이브 공연을 개최했다. 6월 14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미국의 라이브 스트리밍 기업 키스위 모바일(Kiswe mobile)은 협업을 맺어 소속 아티스트인 방탄소년단과 약 100분 동안 '방방콘 The Live'를 진행하게 되었다. 방방콘 The Live는 팬클럽 가입자 기준으로 계산한 티켓 수익이 최소 250억 원이라 추정될 정도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스페인 등 전 세계 107개국의 75만 6000명 이상의 팬들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미술시장에서는

VR(가상현실)을 통해 사람들로 부터 집에서 생생하게 전시를 즐길 수 있게 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공식 사이트에서의 온라인 전시관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았던 '황금인간의 땅, 카자흐스탄' 전시를 비롯한 8개 이상의 전시를 VR 서비스로 제공했다. 그뿐만 아니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전시 동영상과 전시 준비과정 영상을 제공하면서 사람들로 부터 새로운 전시 경험을 갖게 했다. 마지막으로 영화 시장에서는 넷플릭스, 티빙, 왓챠, 웨이브처럼 개방된 인터넷을 통해 방송, 영화 등을 제공하는 OTT(Over The Top) 서비스를 통해 온택트를 도입하게 되었다. OTT서비스를 통해서 사람들은 외출하지 않고도 집에 머무르며 본인이 원할 때 자유롭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월에서부터 5월까지 넷플릭스에는 210만 명, 티빙에는 56만 명, 왓챠에는 29만 명이 신규 가입을 했다. 코로나가 한참 발발했던 시기인 4월에는 드림웍스의 신작 영화인 '트롤: 월드 투어'가 할리우드 상업 영화 중 처음으로 영화관과 OTT서비스인 아마존 프라임을 통해 동시 개봉을 하며 영화 산업 역시 코로나19 사태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국립중앙박물관 온라인 전시 '황금인간의 땅, 카자흐스탄' 캡처본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의 삶의 형태를 변화시켰으며 언택트가 온택트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주었다. 특히 문화예술업계에 도입된 온택트는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코로나에 불안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마음의 위안을 주게 되었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단계가 1단계로 가까워진 요즘, 사람들의 일상적인 경제활동이 허용되면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허용되었다. 그렇게 휴관 했었던 박물관, 미술관들은 재개장을 하게 되었고, 서서히 사람들은 외출을 나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다시 대중들이 문화예술을 즐길 기회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문화예술을 즐기는 와중에도 여전히 개인위생의 조심과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시기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사람들이 분노한 이유는?

다크웹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가 우리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판결을 받았다. 손정우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만을 올리고 유포하는 공간인 ‘웰컴 투 비디오’에서 영상을 판매하고, 사이트의 회원들에게 새로운 영상을 제작하여 올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는 작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미국 법무부가 ‘국제 자금 세탁’에 관한 조사와 처벌을 위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여 올해 4월 손 씨의 출소가 미뤄진 상황이었는 데, 7월 6일 한국 법원이 송환 요청을 거부하면서 그는 석방되었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이 분노하며 항의했다.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에 대하여 이토록 거센 반발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손정우가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아동은 힘이나 권력 등에서 우세한 성인으로부터 자신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어 큰 문

제가 된다. 특히 손정우가 운영한 ‘웰컴 투 비디오’는 10살 이하의 어린이와 2~4살의 유아, 6개월 된 영아를 대상으로 한 영상까지 유포했기 때문에 매우 끔찍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주목받기 시작한 ‘n번 방 사건’도 그 이유 중 하나이다. ‘n번 방 사건’의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SNS 계정을 해킹하여 얻어낸 개인정보를 통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 착취물을 찍도록 했다. 그들은 이렇게 얻어낸 성 착취물을 돈을 내야만 입장할 수 있는 텔레그램 방에 공유했다. 또한 피해자를 직접 불러내어 성폭행하는 등 오프라인 성폭력으로까지 이어져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손정우가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하여 이와 유사한 형태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더 거센 비난을 받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솜방망이 처벌이 있다. ‘조두순 사건’으로 알려진 2008년 아동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는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를 인정 받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손정우의 경우 나이가 어리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결혼하여 부양할 가족이 생긴 점 등을 들어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범죄 수법은 더욱 교묘해졌지만, 처벌은 사실상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온라인상에 나타나기 시작한 성범죄가 점차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성범죄 처벌과 새로 워진 성범죄 유형 등으로 인해 이에 대응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아동 성범죄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디지털 성범죄를 제대로 처벌하기 위한 법의 제정 등 다양한 해결책이 필요한 때이다.

11기 최시우 기자

국민들의 분노와 디지털 교도소

지난 6일, 대한민국 법원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더 수사하고 우리나라에서 처벌해야 한다는 이유로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국민들은 대한민국 법원이 손정우에 대해 아동 성 착취물을 유포한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것이 미국 등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가벼운 처벌이라며 비판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이외에도 고(故) 최숙현 선수 폭행 사건과 전 남편·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받는 고유정 사건 등 각종 성범죄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손정우의 석방이 겹치며 국민들의 사법기관에 대한 회의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를 대변하듯 ‘디지털교도소’라는 새로운 웹사이트가 등장했다. 디지털교도소는 강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일반인에 의해 개설되어 현재 1500여 명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다. 디지털 교도소의 웹사이트 범죄자 목록 게시판에는 범죄자들이 성범죄자, 아동학대, 살인자로 분류되어 그들의 얼굴, 이름, 사진, 출생연도, 학력, 전화번호, 자택 주소, 직장명, SNS 아이디 등 자세한 정보들까지 공개되어 있으며, 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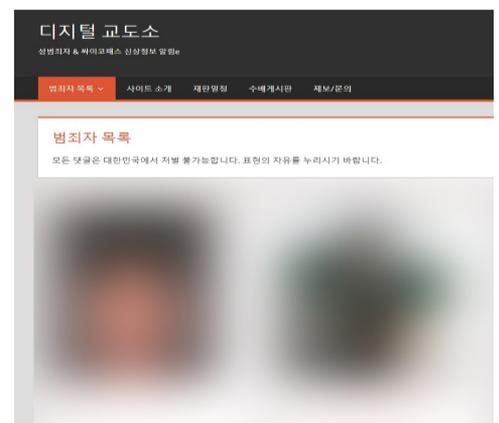
죄의 내용과 함께 처벌 내용에 대해서도 공개되어 있다.

경찰은 특정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을 불법으로 보고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일부 사람들은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수사기관이 성 착취 범죄를 비롯한 성범죄에서 제 역할을 못 하는 상황에서, 이런 사이트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논지다. 김지영 건국대학교 교수는 "디지털교도소가 보여주는 것은 공권력이나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도와 불신이 그만큼 두텁다는 것"이라며 "개개인이 사적으로 정의를 구현하지 않고는 공적인 방식으로는 약자의 정의를 구현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고 설명했다.

그러나 디지털교도소에 의해 부정확한 정보가 공개되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영종한 사람이 지목되어 논란이 된 적도 있는 만큼 동명이인이나 사실관계 오류 등 잘못된 정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이 사이트에서 특정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댓글로 개개인을 비방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 법률적으로 처벌의 여지가 있다.

디지털교도소는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여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으나, 이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엄연한 불법 행위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철저한 처벌과 국민들에 대한 신뢰 회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 포스트)

11기 김나연 기자

진보가 중요한가, 노동자가 중요하지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에 대한 민주노총 내부 논쟁, 무엇이었나?

코로나19는 예고 없이 쏟아진 폭우와 같다. 미처 예상치 못한 재난은 사회 전반에 큰 타격을 입혔다. 그중에서도 국민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는 노동시장의 현황은 참혹한 수준이다. 지불 능력을 상실한 회사는 무급휴직을 제안하고, 노동자는 해고를 요구한다. 월급 없는 6달을 견디느니 실업급여를 받는 게 낫다는 판단이다. 이 상황을 양대 노총(민주노총, 한국노총)과 기업, 정부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노사정은 올해 6월부터 약 한달 간 6자 협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최종안’을 완성해냈다. 이 합의안은 전국민고용보험 적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확대,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책 등을 골자로 한다.

합의를 둘러싼 민주노총 내부 갈등

집행부가 직접 참여해 만들어진 이 합의안이 공개되자 민주노총 내부에선 큰 파장이 일어났다. 김명환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7월 합의의 의결 사실과 이의 승인을 위한 임시 대의원대회 개최를 알리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전 위원장은 온건한 합의 내용에 대한 내부적인 비판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도,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승인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약 한달 간 이어진 치열한 내부 논쟁의 시작이었다.

민주노총은 김명환 위원장 등 집행부를 중심으로 하는 ‘찬성파’와 내부 강경파(소위 노동운동 ‘변혁파’)를 중심으로 하는 ‘반대파’로 이분되었다. 양측 간 논쟁은 언론 기고, 페이스북 등 다양한 경로로 이어졌다.

양측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부분도 있었다. 노사정 합의의 내용이 어쨌든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반대파는 ‘해고금지’와 ‘총고용 보장’ 등 민주노총의 본래 입장이 명문화하지 않은 합의문에 강하게 저항했다. 찬성파 역시도 완전한

친노동자적 합의가 아니라는 우려에 동의했다. 그러나 양측이 내린 결론은 정반대였다. 찬성파는 보다 소극적인 태도로 합의 내용을 검토했다. 민주노총의 주장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가 아닌, “노동을 팔아먹는” 내용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살핀 것이다. 대표적인 찬성파로 논쟁에 참여했던 한석호 전 민주노총 사회연대 위원장은 ‘매일노동뉴스’ 칼럼에 “(노동을 팔아먹는) 그런 조항은 없었다. 또 읽었다. 그래도 없었다. 잘못 본 것일 수 있어서 전화기를 붙들고 여기저기 물었다. 한결같이 없다고 했다.”고 썼다. 합의안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치명적일 정도로 악의적인 것도 아니니 정치적인 맥락에서 승인해야 한다는 것이 찬성파의 입장이었다. 이들은 일단 사회적 대화, 타협에 참여해 의미 있는 발언권을 얻어낸 후, 점진적으로 필요한 개혁을 관철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파는 강경하게 합의를 거부했다. 이들 중 일부는 순수하게 합의 내용의 부족함을 문제 삼았다. 나머지는 정부, 기업 등 권위적인 주체와 합의한다는 개념 자체를 부정했다. 합의 내용이 발표된 7월 초 조합원 일부는 반대 의사 표명을 위한 시위를 벌였다. 그들의 손에 들린 피켓엔 “자본과 정권에 야합하는 민주노총 집행부 사퇴하라!”는 등의 구호가 적혀 있었다. 반대파는 찬성파의 소극적 태도를 ‘패배주의’로 규정하며 사회적 대화에의 참여가 결코 세력 확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서 해고자복지투쟁특별위원회 교육선전국장으로 근무한 바 있는 박예준 평등사회노동교육원 미디어국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합의가) 설사 성사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밑바닥 노동자들의 처지를 끌어올리는 데 쓰인다는 보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약속이요? 깨면 그만입니다. 대체 노사정 합의에 대한 그 큰 신뢰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라며 집행부와 찬성파를 강하게 비난했다.

한 달여 이어지던 논쟁은 서로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결국 7월 23일의 대의원대회에서 임의로 봉합되었다. 대의원 투표 결과 합의안 승인은 반대 61.7%로 부결되었고, 김명환 위원장 등 집행부는 약속했던 대로 사퇴 수순을 밟았다.

합의안 부결 이후, 민주노총이 직면할 비판

합의 내용의 부족함에 대한 내부적 공감대가 있었다고는 하나, 표면적으로 겨우 만들어 낸 결과물을 스스로 뒤엎어버린 꼴이 되었다. 현재 비상대책위원회를 필두로 운영되고 있는 민주노총은 “재네는 조금만 입맛에 안 맞으면 상을 다 얹어버린다”는 외부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또한 노사정 합의의 파행으로 노동조합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노동자의 생계 보장이 어려워졌다는 측면도 있다. 투쟁을 위해 노동자의 안전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한 것이다. 특히나 반대파 중 일부를 구성했던 ‘변혁파’가 매우 이념적인 동력으로 논쟁에 참여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민주노총은 진보주의가 아닌 노동자를 수호하는 단체여야 한다. 이념을 위해 인간을 포기한다면, 앞으로 민주노총이 설 자리는 없을 것이다.

노동운동은 노동자를 위한 것이지만, 노동자는 노동운동을 위한 것이 아니다. 민주노총의 새 집행부는 이 사실을 유념하여 더 이상 유아적인 구좌파로 낙인 찍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합의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출처: 한겨레)

유튜브로 살아남기

- 건전한 유튜브 문화의 중요성

현재 전 연령층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미디어 플랫폼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여지없이 '유튜브'라고 답할 것이다. 수많은 사람이 서로의 영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간이 바로 유튜브이다. 유튜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많아지며 아예 유튜브에서의 수익을 기반으로 직업을 가지는 '크리에이터'까지 생겨나고, 아이들의 진로 희망 1순위가 크리에이터가 될 정도로 유튜브는 지금 전성기를 달리고 있다. 국내 이용자만 3천만이 돌파할 정도로 엄청난 성장세를 그리고 있는 유튜브는 단순히 청소년 / 청년층이 아닌 중장년층까지 흡수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생겨나면서 유튜브의 스펙트럼을 점점 더 넓히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을 수밖에 없는 법이다.

최근 들어 유튜브는 여러 면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유튜브 자체 시스템의 부실함과 수많은 사람이 이용한다는 점을 겨냥한 자극적인 콘텐츠로 유튜브의 구조는 점점 더 기형적으로 변해 가고 있다. 가장 많이 지적 받는 세 부분으로 토대로 살펴본다면, 자극적인 콘텐츠, 내부 시스템, 그리고 허위 정보의 범람을 들 수 있다.



(출처: 송대익 유튜브 캡처)

첫 번째는 자극적인 콘텐츠이다. 최근 한 인기 유튜버가 '먹방'을 하는 과정에서 소위 '주작' 영상을 올려 큰 논란을 빚은 적이 있다. 정상적인 배달음식을 내용물이 부실하고 손상되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린 것이다. 이 일은 사전에 배달된 정상적인 음식 중 일부를 빼돌리기로 계획해 조회 수를 올려 화제성을 높이려는 헤프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튜버로 인해 피해를 본 해상 회사는 현재 유튜버

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칼을 빼 들었다.

이 사건으로 해당 유튜버는 구독자가 크게 줄어들고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았지만, 이런 일들은 특정 유튜버에게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다. 크리에이터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화제성이다. 더 높은 화제성과 조회 수는 그들에게 더 많은 이윤을 가져다 준다. 일부 크리에이터들은 이를 위해 자극적인 섬네일 (미리 보기 화면), 내용, 콘텐츠를 올린다. 자극적이지 않은 콘텐츠는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기 때문이다. 유튜브가 레드오션이 되면서 새로운 구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게 되었고, 이는 자극적인 콘텐츠의 범람을 유도하게 되었다.



(출처: 영국남자 유튜브 캡처)

둘째, 유튜브 시스템 자체의 문제이다. 유튜브는 이용자들에게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을 노골적으로 권유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광고를 넣으며 시스템상에서 수익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외국 계열 회사라는 이유로 유해하고 부적절한 콘텐츠에 대한 국내의 민원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여 이용자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튜브의 노력은 미미해 보인다. 짧은 영상에도 지나치게 많은 광고가 삽입되어 있어 사용자가 동영상을 제대로 감상하지 못하고, 이를 위해 '유튜브 프리미엄'에 가입해야 하는 등 도가 지나친 상술이 지적받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국가별 언어에 따른 댓글 노출을 검열하여 한국어 댓글보다 영어 댓글이 위쪽에 고정되어 있다는 의혹이 한 인기 유튜버에 의해 제기되면서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또한 유튜브는 아동용 콘텐츠에 대한 대대적인 댓글 제재를 시행하기도 했는데 이때 성인인 유튜버가 아동으로 인식되어 그 활동을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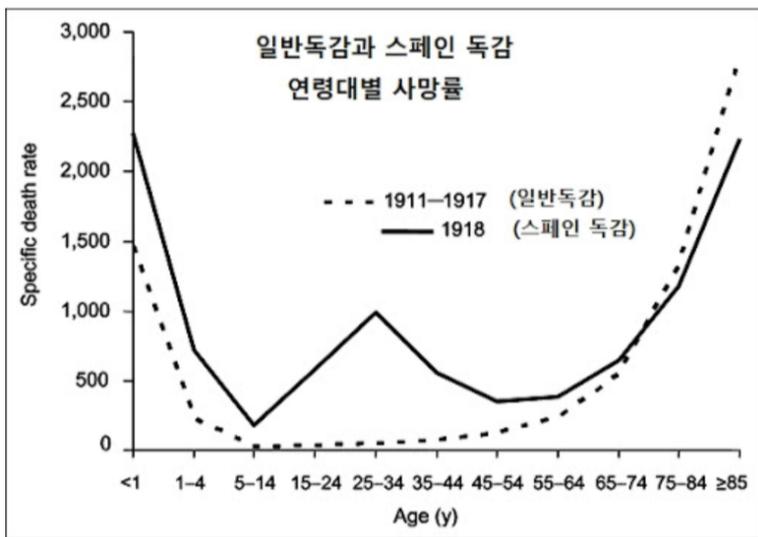
한받는 실수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유튜브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여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셋째, 허위 정보의 범람이다. 유튜브는 특정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도 얼마든지 정보를 생산 / 가공해 사람들에게 유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허위 정보를 퍼뜨려 사람들에게 혼란을 조장하는 유튜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정치 분야에 관련된 유튜버나, 연예인들과 관련해 근거 없는 루머를 사실인 양 '긴급하다'며 사람들에게 알리는 유튜버들이 하나둘씩 명성을 얻고 수익을 창출해 내고 있다. 허위 정보는 대부분 자극적 / 충격적인 경우가 많은데, 사람들은 이러한 정보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유튜브는 사용 연령이 매우 어린 어린이부터 고령의 어르신까지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직 자아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정보를 수용하는 과정에 있어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사실이 아닌 편향된 정보만을 받아들여지게 되면 프레임에 갇혀 일방적인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되어 오히려 서로 간의 소통 단절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유포된 허위 정보는 유튜브의 정보 범람을 초래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범람은 장기적으로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대한 신뢰를 저하할 수 있는 큰 요소이다.

사용자들의 자발적인 유해 콘텐츠 차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튜브 자체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다. 사용자들의 자체적인 노력은 한계가 있고, 유튜브의 시스템 존재 이유가 바로 이러한 사용자들의 불만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유튜브의 빛과 그림자라는 양면은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 유튜브가 해야 할 것은 그림자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현재의 성장세를 계속 유지해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앞서 말한 여러 가지 논란들에 대해 유튜브는 보다 더 강력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면역력이 높을 수록 위험하다; 사이토카인 폭풍

사이토카인(Cytokine)은 면역세포에서 분비되는 단백질 면역조절제이다. 사이토카인 폭풍(Cytokine Storm)이란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면역 물질인 사이토카인이 과다하게 분비되어 정상세포까지 공격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이론으로, 과잉 염증반응이라고도 부른다. 이는 과도한 면역반응이 오히려 해가 되는 예이며 폐의 염증 심화와 손상을 불러 폐가 섬유화되기도 하고, 심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사이토카인 폭풍은 스페인 독감과 같은 팬데믹에서 젊은 층의 치사율을 높여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다.



▲ 스페인 독감의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인한 청년층 사망률 증가(출처: 한겨레)

사이토카인 폭풍은 스페인 독감, 조류독감, 사스, 메르스 등 높은 사망률의 전염병들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이는 주로 면역체계가 가장 활발한 젊은 층이 타깃이었기 때문에 치사율을 높일 수 있었고, 특히 스페인 독감의 경우 다른 인플루엔자와 달리 20~40대의 사상자 수가 70%에 육박했다고 한다. 스페인 독감은 당시 세계 인구의 30%에 달하는 6억명을 감염시켰으며, 1년만에 1차 세계대전보다 많은 사상자를 앓아간 사상 최악의 독감으로 평가된다. 위와 같은 사이토카인 폭풍은 폐 조직이 손상되어 호흡을 어렵게 하는 급성 폐손상(ALI, Acute Lung Injury)을 빈번히 발생시키며 악화될 경우 호흡곤란증후군(ARDS)까지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체내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고 기능 저하 및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는 전파력이 사스나 신종플루보다 떨어지지만 체내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증식 속도가 빠른 메르스를 포함하여 현재 진행중인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대두되고 있다. 이는 중국 연구진이 우한의 환자 41명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코로나19에서 나타나는 사이토카인 폭풍 문제를 관측했다. 이에 따르면 “중증 코로나-19 환자에서 IL-1 β , TNF α , GM-CSF 등 염

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가 증가함을 관찰했다(Huang et al., 2020)”라고 발표된 바 있다.

이에 IBS는 “코로나19는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나 기저질환자가 치사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젊은 층의 사람들에게는 큰 타격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국내외에서 젊은 환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위중한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 ‘사이토카인 폭풍’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코로나19에서의 사이토카인 폭풍의 출현을 알렸다.

이들은 모두 과도하면 염증을 유발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으로, 양면성을 지닌다. 강력한 염증성 사이토카인에 해당하는 IL-1 β 는 손상된 조직들의 회복을 돕지만, 반대로 과도하면 염증의 심화와 조직 섬유화를 부른다. TNF는 세포사멸신호를 전달하여 감염된 세포를 죽임으로써 바이러스 증식을 막지만 과도하게 분비되면 정상 세포까지 미쳐 조직이 손상될 수 있다. 면역세포의 생성을 돕는 GM-CSF는 호중구를 증식시켜 대식작용을 통해 감염세포를 제거하는데, 과도할 시 이 과정에서 주변 세포에 손상을 주거나 무차별적으로 죽일 수 있다. 또한 호중구는 효소를 분비해 조직을 손상시키고, 혈소판으로 혈액 응고를 촉진할 시 혈관이 막히기도 한다.



(출처:한의학융합연구정보센터)

스페인독감은 사망자가 3번에 걸쳐 급증하는 폭발기를 가졌고, 그 중에서도 2차 폭발기 때 합병증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와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언제 또 변종 바이러스가 나올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지금의 변종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변종이 발생할 경우 바이러스가 한꺼번에 다량 침투하여 면역력이 높은 사람들에게 과잉염증반응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GMO식품, 인류에게 축복일까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정의와 찬반 논란

유전자 재조합 기술(GM)은 어떤 생물의 유용한 유전자만을 취하여 다른 생물의 DNA에 삽입하여 새로운 특성을 나타내게 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식품에 적용하여 병충해나 제초제에 대하여 면역력이 증진되거나 생산량이 증대된 산출물이 바로 유전자 조작 식품이다. 흔히 유전자 조작 식품을 GMO라는 용어로 통칭하고 있지만, 정확히 용어를 정리하자면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 변형 생명체, GM Food(Genetically modified food) 유전자 조작 식품, GE Food(Genetically Engineered food) 유전 공학 식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현재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식품에서 유전자 조작 식품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GMO의 환경 문제나 부작용에 대한 논쟁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소비자들 사이에 불안한 분위기는 아직 사라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를 바탕으로 GMO에 대한 찬성과 반대 여론을 살펴보자 한다.

찬성측 의견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옥수수는 기업 몬산토에서 개발한 '킹콘'인데 이것의 수확량은 100년 전보다 다섯 배나 차이가 난다. 이외에도 면역력이 증진되거나 해충에 강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작물이 겨우 손실되는 양이 적어, 더욱 많은 작물을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더하여 환경적인 이점도 있는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유장렬 박사는 "GMO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효과는 1,240만 대 차량 운행 정지와 맞먹는다"라며 "20년 동안 GMO는 각자의 호불호와 무관하게 세계인의 삶과 경제·과학·농업·무역 등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했다.

또한 안전성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여러 기관에서 실시되었던 부작용 실험들에 대한 반박들이 차례로 제기되고 있다. GMO 부작용 실험으로 가장 대표적이었던 세라리니 실험-2012년 9월 19일 프랑스의 칸 대학 연구팀이 유전자 조작 옥수수를 쥐에게 2년간 먹인 결과 200마리 중 50%~80%의 쥐에서 거대한 암 종양이 발생했다고 한 실험-의 경우 OECD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실험군을 구성한 쥐의 숫자가 최소 50마리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식약처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안전성 평가자료 심사위원회에서는 GMO의 유해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실제로 GMO가 시중에 거래된 지 약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보이는 사건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GMO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도 많이 사그라들고 있다.

반대측 의견

GMO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있다. 과거에 GMO 부작용 실험들이 여러 차례 발표되면서 그 실험이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람들의 불안을 조정한 결과이다. 하지만 GMO가 단순히 안전성의 문제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다국적 종자 기업의 기술 독점 문제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인 몬산토는 전 세계의 유전자 조작 농산물 90% 이상의 생명 특허를 독점하고 있다. 또한 몬산토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농산물의 2세대 씨앗을 다

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매년 회사의 씨앗을 구매하게 만든다. 이에 더하여, 제초제에 내성이 있는 작물과 함께 이에 맞는 제초제를 제작하여 동시에 판매, 이익을 취하고 있지만, 제초제의 주성분인 글리포세이트를 세계보건기구가 2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기도 한 점을 보면 GMO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과 함께 기업의 이익으로 발생하는 환경과 건강상의 문제도 무시할 수는 없다. 이러한 다국적 종자 기업의 전 세계적인 식량 주권 독점에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것은 많은 양의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수입국인데,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쌀의 자급률이 100%인 반면, 밀, 옥수수, 보리 등의 자급률은 5% 미만으로 식량 자급률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기업의 이익 여부로 인해서 작물의 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식량에 대한 불안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전망

GMO는 점점 사람들의 밥상 위 대부분을 점령해가고 있다. 실제로 GMO의 등장이 많은 작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식품의 양 역시 증가 시켜 앞으로 다가올 식량 문제의 대비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에는 비타민A를 강화한 황금 쌀(golden rice)과 같이 단순히 생산량을 증식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 영양 성분을 강화하여 웰빙을 겨냥한 2세대 유전자 조작 작물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 이에 이어서 앞으로 개발될 3세대 유전자 조작 작물은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까지 가질 전망이라고 한다. 하지만 GMO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감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는 않았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GMO를 사용했다면 완제품에 GMO DNA 혹은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GMO 사용 여부를 표기하도록 한 "GMO 완전 표시제"를 계속해서 국가에 요구하고 있다.



▲기업에서 산 배추 씨앗 실험 (출처: 지식채널 E)

우주 산업 시대로의 한 걸음

- 우주선을 보호하는 세라믹 에어로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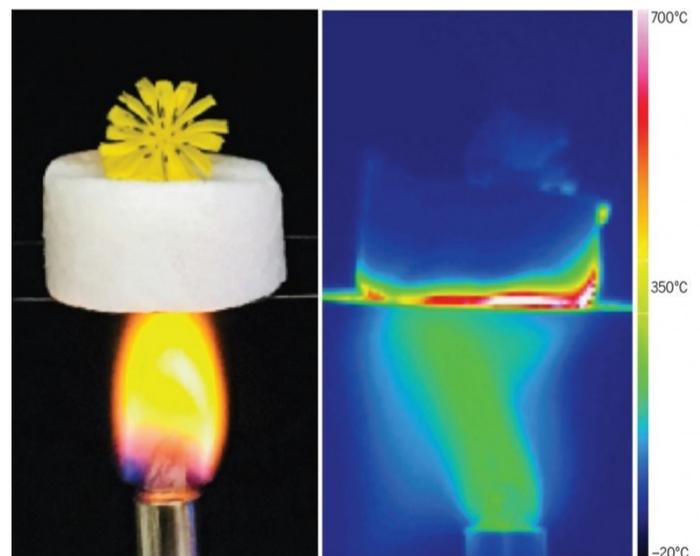
지난 5월, 민간 기업 SPACE-X가 세계 최초로 민간 유인우주선 ‘크루 드래곤’의 발사를 성공시키며 화제가 되었다. 2002년, 엘론 머스크에 의해 창립된 SPACE-X는 현재 재사용 로켓을 개발하여 로켓 발사비용을 1/10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주 목표로 삼고 있다. 이번에 사용된 로켓인 펠컨 9 역시도 재사용이 가능한 로켓이다. 우주선의 재사용에 중요한 것은 재진입시의 높은 온도와 강한 열을 견디고 기능과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뛰어난 단열능력이다. 그리고 최근, 우주선의 비용 절감에 기여할 뛰어난 단열능력의 신소재가 개발되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의 시양펑 두안 교수와 중국 하얼빈공대의 후이 리 교수가 이끈 8개 기관 다국적 연구진은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 "내구성과 내열성이 뛰어난 초경량 '세라믹 에어로겔'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에어로겔은 공기를 의미하는 'aero'와 3차원 네트워크 구조를 의미하는 'gel'의 합성어로 합성할 때 형성된 gel 구조가 유지된 상태에서 gel 구조 내 액체를 공기로 변화시켜 얻은 고다공성 나노구조체다. 고체임에도 체적의 99%가 공기이기에 구조적으로 매우 가볍고 강하다. 탄소와 금속 산화물 등 다양한 재료로 제조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있다. 그중에서도 세라믹 에어로겔은 단열 능력이 뛰어나고 부식에 대한 내성이 있어 미래 단열재로 각광받고 있다. 사실 세라믹 에어로겔은 이미 1990년대부터 단열재로 이용되고 있으며 NASA 화성 탐사선에 사용되기까지 했었다. 하지만 기존의 세라믹 에어로겔은 내구성이 약해 초고온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거나 급격히 온도가 변화하는 환경에 처했을 때는 우주선 등의 단열재로 크게 활용되지 못했다.

UCLA 등 연구팀은 세라믹 에어로겔의 단점인 약한 내구성의 원인이 불균일한 내부 구조 때문이라고 판단해서 기존보다 안정적인 에어로겔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이 새롭게 개발한 세라믹 에어로겔은 얇은 질화붕소와 내구성을 보완하기 위해 육각형 패턴으로 원자를 결합시킨 세라믹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새로운 세라믹 에어로겔은 과열 상태에서 기존의 세라믹 재료처럼 팽창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 수축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새로운 세라믹 에어로겔은 초고온·초저온 상태 변화와 초고온 반복 등에도 뛰어난 내구성을 갖췄다. 또 기존 에어로겔과 대비하여 더욱 경량화 시켰으며 독특한 원자 조성과 미세 구조로 탄력성까지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UCLA 실험에서 연구팀이 개발한 에어로겔은 몇 초 사이에 -198도에서 900도 사이로 온도를 수백 번 변화시켜도 기존의 에어로겔과 달리 손상이 없었다. 또 주위 온도를 1400도로 설정해 1주일간 방치한 경우에도 기계적 강도 손실률이 1% 미만에 불과했다.

기존 세라믹은 원래 부피의 20%까지만 압축할 수 있지만 새 에어로겔은 5%까지 줄어들었다가도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되었다. 개발에 참여했던 UCLA 시양펑 두안(Xiangfeng Duan) 교수는 “우리가 개발한 새로운 세라믹 에어로겔 내구성의 핵심은 육각형의 독특한 구조다. 이 구조가 가진 타고난 유연성과 내구성은 기존의 에어로겔이 파손되는 극단적인 고온과 극심한 온도변화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말했다. 또 두안 교수는 이번 신소재를 만들기 위해 개발된 프로세스를 에어로겔뿐만 아니라 다른 초경량 소재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초경량 소재는 우주선, 자동차, 기타 특수 장비의 단열재로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열에너지의 저장·축매·여과 등에도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간 우주 산업이 도래하기 시작하면서 초경량 단열재의 성능 발전과 상용화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또한, 초경량 단열재의 개발은 우주 산업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이나 지구온난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번 세라믹 에어로겔의 개발이 초경량 단열재 개발의 종점이 아닌 우주 산업 시대를 비롯한 미래 산업으로의 도달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세라믹 에어로겔의 밑부분에 열을 가해도 윗부분의 온도는 그대로인 모습 (출처: 동아사이언스)

실존주의: 절망적 상황에서 나타난 철학

실존주의는 인간의 존재와 현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하려 드러낸다. 이는 사상으로, 야스퍼스가 실존철학이라고 부르고, 세계 2차 대전 직후 샤르트르가 실존주의라고 부르면서 명칭 된 철학사상이다. 합리주의, 실증주의 등 보편적이고, 이성 중심적인 철학들에 반대하는 성향을 띄고 있으며, 20세기 초반 독일과 프랑스에서 시작되어 세계 2차 대전 이후 널리 확산되었다. 주로 전쟁을 겪거나 위기를 맞은 나라들에서 유행하였지만, 풍요를 추구하며 퇴보되었다.

이는 1940-1950년대의 문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실존주의가 확산되면서 근대의 합리주의적 문학에 반하여 프랑스에서 실존주의 문학들이 많이 등장하였다. 이 문학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 20세기 중반 문학은 실존주의 문학이 많았고, 우리나라 문학인들도 이에 영향을 받았다. 서양의 실존주의 문학으로 구토, 광기의 역사, 존재와 시간 등이 있으며, 한국 문학에는 수난시대 요한 시집 등이 있으며, 암울한 시대에 유행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실존주의는 절대자의 존재를 다루느냐, 다루지 않느냐에 따라 두 종류의 실존주의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유신론적 실존주의이고, 후자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이다.

유신론적 실존주의

유신론적 실존주의를 대표하는 주장은 인간의 이성에 결함이 있고 이로 신을 알려 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19세기 이후, 과학의 발달로 기독교 사상이 비판받자, 이에 몇몇 신학자들이 형식적인 기독교 교리를 비판하여 예수의 극단적인 신성함을 조절하고, 도덕적 측면을 받아들여야 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며, 이것이 유신론적 실존주의로 이어졌다. 유신론적 실존주의는 기독교적 절대자를 실존주의로 이어졌기에 기독교적 실존주의라고도 한다.

대표적인 유신론적 실존주의자는 키에르케고르가 있다. 키에르케고르는 그의 오랜 친구인 목사가 찾아왔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하느님이 주권자인 것은 확실하나 그 후 인간들이 나타나 그리스도교를 자기 마음대로 정비하려고 하여 주권자는 목사가 되었다.” 그는 신의 존재를 인정했으나, 현재 상황의 종교를 비판하였다. 그는 결국 잊혀지는 듯 했으나, 20세기 독일, 프랑스 사상가들에 의해 실존주의의 선구자로 거듭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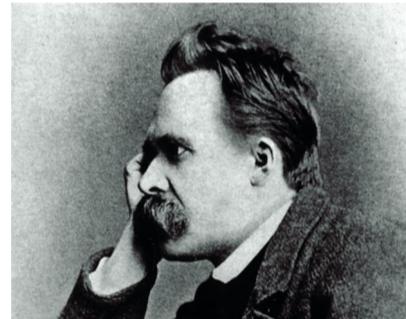
▲ 키에르케고르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무신론적 실존주의

유신론적 실존주의와 다르게, 무신론적 실존주의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인간의 선택에 대한 자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인간은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이며, 선택에 고통받는다고 주장한다. 어떤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는 기독교를 비판하기도 하며, 인간의 일으킨 참사에 대한 반성을

대표적인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는 샤르트르와 니체가 있다. 샤르트르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고 말했다. 인생은 탄생(Birth)과 죽음(Death)사이의 선택(Choice)이란 뜻이다. 샤르트르는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일과 인간의 실존을 구별해주는 본질이 태어날 때부터 없으며, 인간은 던져진 존재이고, 본질은 인간이 선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인간의 윤리, 도덕법칙을 어기는 것에 무신경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 인간은 자신의 선택에 자유를 행사하고 책임을 지는 존재로 규명하여 개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였다.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인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남겼다. 니체는 도덕적인 선악은 노예제의 등장으로 나타났고, 기독교적 사상에 의해 극대화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니체의 말의 의미를 나타낸다. 노예를 다루는 이들의 기준은 좋음과 나쁨이라면, 노예들의 기준은 선과 악이다. 니체는 좋음과 나쁨의 기준을 군주도덕이라고 하였다. “신은 죽었다” 이 말의 뜻은 나약한 이들의 도덕에 매달리지 말고 군주도덕을 부활시켜 초인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고, 나약한 이들의 도덕을 기독교에 빚대어 그 당시의 기독교를 비판하고 있다. 니체의 이런 비판에도 기독교



▲ 니체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적 사상은 유신론적 실존주의로 이어지는 데에 성공했다. 몇몇 신학자들이 기독교 교리를 변화시켜 과학적 상식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고 그 당시의 형식적 기독교를 멀리하여 점차 변화하였다.

실존주의의 경고

실존주의는 기독교의 위기, 세계 대전, 우리나라의 6.25전쟁 등, 절망적인 시대상에 인간의 이성을 비판하거나 도덕을 비판하며 성장했고, 절대자의 존재를 두고 유신론적 실존주의와 무신론적 실존주의로 나누어졌다. 유신론적 실존주의는 절대자의 존재는 긍정하되, 형식적이고 과학적 상식에 적응하지 못하는 당시의 기독교를 비판하며 발생하였다. 무신론적 실존주의는 인간의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고 주장하여 개인의 의무나 규칙에 대한 새로운 자유를 부여했으며, 니체와 같은 철학자는 기독교적 윤리를 비판하고, 귀족들의 도덕인 군주도덕을 갖춘 초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존주의는 인간의 본성을 믿어왔던 사람들에게 큰 비수를 박아 선을 긋는 철학이었고, 희망적인 분위기에 사그라진 철학의 비상상태라고 할 수 있다. 현재에도, 내전에 따른 난민과 종교적 성적 차별과 탄압에 따라 실존주의가 나타나려는 움직임이 있다. 실존주의의 등장은 인간 이성의 한계를 보여주며, 현재의 사태를 경고하는 역할을 한다.

오늘의 우리가 듣고 있는 음악은?

- 대한민국 가요계의 새로운 흐름

음원 사이트에서 항상 상위권에 머무르는 음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주류'라고 일컫는 음악은 보통 사랑을 주제로 한 발라드나 여러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주목을 받은 힙합, 혹은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한 아이돌 음악 등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음악들은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받고 있지만, 최근에는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주목하지 않았던, 그리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음악들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 싹쓰리 (출처: MBC <쇼! 음악중심>)

첫 번째는 가수가 아닌 연예인들의 새로운 도전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적절한 예시는 '싹쓰리'가 아닐까 싶다. 싹쓰리는 MBC <놀면 뭐하니?>를 통해 꾸려진 프로젝트 그룹으로, 유재석, 이효리, 비가 그 구성원이다. 이효리와 비는 화려한 무대로 한 시대를 휘어잡았던 최고의 스타이며, 유재석은 개그와 진행을 통해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는 국민 MC이다. 이 세 사람의 조합은 방송에서 종종 볼 수 있었지만, 이들이 90년대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혼성그룹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방송에서는 각자에게 '유두래곤', '린다G', '비룡'이라는 캐릭터를 부여해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곡 선정부터 뮤직비디오 제작까지 '싹쓰리'가 데뷔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는 대박이었다. 이들이 발표한 음원은 발매 되자마자 음원 사이트를 휩쓸었으며, MBC <쇼! 음악중심>까지 출연해 멋진 무대를 선보였다. 익숙한 조합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시너지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하나의 큰 즐거움이 되어주었다. 사람들은 싹쓰리의 준비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놀면 뭐하니?>를 보며 단순한 재미를 넘어 묘한 감동이 있다고 말한다. 아마 최고의 스타였던 두 사람과 프로그램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국민 MC가 신인의 마음으로 돌아가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 그리고 90년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노래와 춤의 조화가 시청자들의 마음을 자극하지 않았을까 싶다.

두 번째는 트로트이다. 보통 '트로트' 하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흘러나오는 일명 '뽕짝'을 떠올리거나 어르신들이 듣는 음악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다. 이러한 사고의 판도를 바꾸어버린 것이 <미스터트롯>이다. <미스터트롯>에 이어 2020년 1월 방영을 시작한 <미스터트롯>은 젊은 트로트 가수 101팀이 제2의 트로트 전성기를 이끌 차세대 트로트 스타가 되기 위해 경연한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최고 시청률 35.7%, 결승 생방송 문자투표 773만 1781건을 기록하며 어마어마한

저력을 보여준 <미스터트롯>은 대성공을 거두며 2020년 3월 종영했다. 이와 같은 대단한 성공의 주역은 그 누구도 아닌 트로트 가수들 자체일 것이다. 그들은 탄탄한 실력과 다채로운 매력으로 10대 이전의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폭발적 인기를 보여주고 있다. 최종 진, 선, 미를 차지한 임영웅, 영탁, 이찬원뿐만 아니라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 등 <미스터트롯>을 통해 훌륭한 모습을 보여준 가수들이 꾸준히 많은 사랑을 받는다. 임영웅, 영탁 등 프로그램에서 특히 큰 주목을 받았던 가수들은 <사랑의 콜센타>, <뽕송아학당>과 같은 고정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으며, 영탁의 경우 MBC <꾼대인턴>에 카메라로 출연해 놀라운 연기 실력을 보여주는 등 노래 외에도 예능, 드라마, 광고, 화보 등 다양한 방면에서 크게 활약하고 있다. 이들이 출연하는 예능은 줄줄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고 있고, 광고 효과 역시 매우 뛰어나다. 임영웅은 <바리스타 룰스>, <G4 렉스턴> 등, 영탁은 <광동헛개차>, <피죤>, <멕시코나치킨> 등의 광고 모델로 발탁되며 그 저력을 보여주었다. <미스터트롯> 경연 중 <막걸리 한잔>이라는 곡으로 최고의 무대를 만들어낸 영탁의 이름을 딴 <영탁막걸리>가 출시되기도 했다. 이처럼 트로트 가수들은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들이 음원 차트에 가져온 변화 역시 대단하다. 특히나 음원에 있어서 말 그대로 '비주류'로 통했던 트로트가 주요 음원 사이트 TOP100에 진입한 것을 넘어 꾸준히 순위 안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주요 소비층이 한정적이었던 트로트가 점차 대중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 좌측부터 임영웅, 영탁, 이찬원(출처: <싱글즈 Singles> 유튜브 채널)

가수 영탁은 여러 인터뷰에 응할 때마다 마지막으로 '저희(미스터트롯 출연자)뿐만 아니라 모든 트로트맨들을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라' 당부한다. 단순히 자신이 주목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처럼 힘든 시간을 겪었을, 혹은 겪고 있을 소중한 동료들을 한마음으로 응원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 힘들을 몸소 겪어 너무나도 잘 알기에 전혀 상상치도 못하게 찾아온 기회에, 그리고 그를 통해 만들어진 소중한 순간순간에 더욱 감사를 표한다.

그들은 항상 준비되어 있었다.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뿐 이다. 이처럼 많은 이들에게 주목받지 못했던, 우리나라에서 '비주류'로 통했던 음악들이 대중들에게 알려지는 기회가 많이 마련되어 대한민국 음악의 다양성이 점차 증대되기를 기대한다.

새로운 소비 주체의 등장

- '홈루덴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된 이후, 사람들의 소비문화도 과거와 몹시 다르게 변화하였다. 이전에는 어떤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시장을 직접 가서 소비하는 모습이였다. 그러나 디지털 문화가 보편화되면서 온라인으로 소비가 가능해지고 사람들은 본인의 집에서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것에 익숙해졌다.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들 또한 스마트폰으로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온라인으로 구입하는 모습을 보인다. 최근 들어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평소보다 많아지면서 이러한 소비 현상은 더욱 일반적인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소비 주체를 뜻하는 신조어가 등장하였다. 이른바 '홈루덴스족'이다. '홈루덴스족'은 집을 뜻하는 '홈(Home)'과 '놀이'를 뜻하는 '루덴스(Ludens)'를 결합해 만든 신조어이다. 이들은 멀리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에서 여가를 보내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홈루덴스족은 집에서 주로 어떤 소비를 즐기는 것일까?

첫 번째로는 '홈 영화'이다. 말 그대로 새로 개봉한 영화나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를 집에서 보는 것을 뜻한다. 매번 영화관에 가기엔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사람과 함께하다 보니 방해받고 싶지 않은 순간에도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그들은 영화관에 가지 않고도 집에 있는 TV나 빔 프로젝터로 영화관 못지않은 퀄리티로 영화를 즐긴다.



(출처: 네이버)

여러 편리한 배달 어플이나 배송 시스템이 우리 곁으로 자리 잡게 됨에 따라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그들을 타깃으로 판매하는 소량의 냉동식품이나 식자재들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한 영향을 바탕으로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도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홈루덴스족들이 홈 식사를 많이 선호한다.

세 번째로, '홈 게임'이다. TV에 연결하여 즐기는 비디오 게임인 콘솔 게임이나 PC방과 같은 고사양 컴퓨터를 구입하여 집에서도 고퀄리티의 게임을 즐기는 것을 뜻한다. PC방에서 할 수 있는 인터넷 게임의 경우 환

경적으로는 집보다 훨씬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시간당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주변 소음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초기비용을 감수하고 자신의 집을 PC방처럼 꾸며놓고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기도 한다. 아무것도 없었던 주거 공간에 새로운 환경을 만드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영구적으로 해당 활동을 즐기면서 여가 시간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네 번째로, '홈 카페'이다. 본인의 집을 실제 카페처럼 꾸미고 원하는 커피나 음료를 즐기는 것을 뜻한다. 다양한 음료를 제조할 수 있는 블렌더나 디저트를 만들 수 있는 오븐 등을 사용하여 실제 카페와 같은 분위기를 주기도 한다. 홈 카페는 그들이 나름대로 취미생활을 즐김과 동시에 자신이 원하는 음료도 마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홈 트레이닝'이다. 여러 매체를 이용하여 집에서 간단한 근력운동이나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을 뜻한다. 집에서 간단한 운동기구를 이용하거나 어플을 활용하여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기도 한다. 지금과 같이 밖으로 나가기 어려운 상태에서 본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홈 케어, 홈 인테리어, 홈 캠핑, 홈 가드닝 등 훨씬 다양한 활동들이 존재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가속화됨에 따라 위와 같은 소비생활을 즐기는 홈루덴스는 늘어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맞물리면서 가정에서도 외식 못지않은 식사와 여가를 즐기려는 욕구가 홈루덴스 문화에 반영됐다고 분석한다. 특히 이 같은 문화의 확산은 음식·숙박업을 비롯한 서비스 산업 전반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 새로운 수요를 예측하고 선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인 황규선 박사(경제학)는 "코로나19는 결국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집이 가장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줬다"며 "홈 루덴스의 확산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포함한 산업 변화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할 것"이라고 했다.

점점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되고 이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양식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혹자는 몇 년 이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홈루덴스족이 되어 현재 시장산업이나 모든 경제활동이 바뀔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한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이러한 소비 문화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전자상거래 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현주소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에게 온라인 플랫폼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상품의 구매나 여가 생활, 소통, 정보 전달 심지어는 일이나 학업까지도 온라인 플랫폼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 속 깊은 곳까지 자리 잡은 온라인 플랫폼은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검색엔진 기반, 전자상거래 기반, SNS 기반, 그리고 스마트폰 기반의 플랫폼으로 구분할 수 있는 네 종류의 플랫폼들은 모두 우리의 삶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중 전자상거래 기반 플랫폼은 바쁜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플랫폼이다.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의 대표적인 형태는 우리가 흔히 아는 다양한 인터넷 쇼핑몰이다. 소비자가 직접 가지 않아도 원하는 물건을 골라 구매할 수 있고, 그것을 직접 받으러 갈 필요 없이 배달해주는 서비스가 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핵심 서비스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서비스인 만큼 검색과 구매, 재구매, 환불, 입고 알림 등이 빠르게 진행된다. 또, 소비자들의 구매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맞는 상품 추천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온라인으로 원하는 상품을 담아 결제하고 배송이 되기를 기다리는 일만 하면 된다. 요즘은 이러한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필요한 식자재를 아침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새벽에 배송해주거나, 당일 배송, 로켓 배송이라는 서비스로 빠르게 물건을 전달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온라인 플랫폼은 바로 마켓컬리나 이마트몰, SSG, 쿠팡, 롯데마트 몰 등이다. 위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들은 식자재나 물건을 소비자들에게 배달해주는 역할을 주로 한다. 하지만, 요즘은 이 같은 서비스에서 멈추지 않고 지



(로그출처: 구글)

금까지 제공해온 서비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자들의 수요를 예측하고, 그에 맞추어 물량을 준비하는 물류 플랫폼의 역할까지도 한다. 즉, 온라인 플랫폼으로써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류 플랫폼으로써도 자리를 잡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 수요의 증가로 다양한 종류의 플랫폼이 하나로 합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들은 더 사용하기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온라인 플랫폼들도 문제는 존재한다.



(출처: 매일신문)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소비자들은 편안하게, 이른 시일 내에 물건을 배달 받을 수 있지만, 물건을 배달해주는 배달 기사님들의 일은 급격히 증가했다. 실제로 한진 택배의 경우, 1분기 택배량이 전년 대비 30%가량 증가기도 했다. 이는 집에서 간단하게 클릭 몇 번으로 바깥에 나가지 않고 원하는 물건이나 식자재를 구매하는 소비자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의 증가로 인해 택배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즉,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해 늘어난 택배량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택배 기사님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늘어난 택배량과 더불어 특정 시간을 맞추어 배송해야 하는 당일 배송이나 로켓 배송 등의 서비스가 늘어남에 따라 택배 기사님들의 업무 강도는 더욱 커졌다.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온라인 플랫폼은 더욱 편안한 삶을 만들어주는 기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사회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는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온라인 플랫폼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온라인 플랫폼 이외에도 기술,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발전으로 인해 나타나는 변화에 적응이 필요함과 동시에 잘못된 부분들은 고쳐 나갈 수 있는 모습을 지녀야 한다.



학생 공모작: ✧ 학생 제공

국문신문부 명단

- 창체: 김도이, 김동건, 김민지, 김성종, 박승환, 박유니아, 박은수, 이람운
- 자율: 김민서B, 김재훈, 박소연, 임예원, 정나영, 최종엽, 김나연, 박규선, 박미솔, 박헌경, 왕현민, 양아현, 최시우, 허예은, 홍연수

당신이 사회에 하고픈 말이 있다면 하나신문은 언제나 당신에게 열려있습니다. 소중한 의견, 망설이지 말고 보내주세요.

문의: 국문신문부 동아리장 10기 김도이 (Email : wcemma@naver.com)

하나고를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학교법인을 후원해주신 분들 (2019.12.17. ~ 2020.8.6.)

- 하나생명보험(주)
- (주)하나자산신탁
- 하나캐피탈(주)
- 하나카드(주)
- (재)정현재단
- 8기 학부모회
- 김용균님
- 정철화님
- 하나금융그룹 전,현직 임직원

▶ 학교발전기금을 후원해주신 분들 (2019.12.17. ~ 2020.8.6.)

- 하나카드(주)

▶ 하나고등학교 후원 안내

하나고등학교에 대한 후원은 자라나는 인재들이 시장경제를 이해하고 반듯한 인성과 친기업 정서를 지닌 건전한 지도자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학교법인사무국(02-6913-1100, 1105)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나고등학교
Hana Academy Seoul